



[라벨링] 美 낙농업계, FDA에 식물성 대체식품의 낙농용어 사용 문제 해결 촉구

- 무분별한 낙농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들의 혼란 야기 강조



지난 10개월간 공석이던 미 식품의약국(FDA) 국장에 로버트 캘리포 전 FDA 국장이 지명된 가운데, 낙농업계가 FDA에 식물성 대체식품의 낙농용어 사용 문제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중서부 지역 낙농가를 대표하는 엣지낙농협동조합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소비자들이 식물성 대체식품에 표기된 낙농용어로 인해 제품에 우유나 유제품이 함유되어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FDA가 식물성 제품의 낙농용어 사용 규제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조합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우유를 포유동물의 유즙으로 정의되어 젖소의 우유로 만든 제품에 한해서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및 요구르트 등의 용어 사용이 가능한데 반해 FDA는 모방 제품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롭게 지명된 국장이 식물성 대체식품업계의 무분별한 낙농 용어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바라며 상원에 신속한 인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 출처 : perishablenews.com, 11월 17일 >

[지속가능] 英 스타벅스-알라푸드, 탄소 중립 위한 협력 나서

- 탄소배출 저감, 환경보호, 동물건강복지 강화 및 낙농가 수익성 보장



영국 스타벅스와 알라푸드가 낙농업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최근 스타벅스는 오는 2030년까지 낙농 공급망의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알라푸드와 함께 원유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환경보호, 동물건강복지 및 낙농가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알라푸드 소속 14개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제품 생산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출처 : farminguk.com, 11월 17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